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최석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
----------	-----

발의년월일 : 2015. 4. 23.

발의자 : 최석정 · 안영수 · 김정현
의원

(찬성자 : 7 인)

1. 주문

인천광역시는 공항 서비스 세계 1위, 국제화물처리량 세계 2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뿌리산업 산업단지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비해 뒤떨어진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항공기 정비수요가 있고, 관련부지가 있으며, 배후지원체계가 갖추어진 인천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항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인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내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라!

하나. 정부는 영종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소재지 이전 검토를 중지하고 인천에서의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의 본연의 기능강화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 재난예방을 위해 관련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항공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적극 지원하여 공기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2.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 미래발전 기반시설은 인천국제공항이며,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구도심 산업단지를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인천은 구도심 산업단지의 공동화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와 상업시설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이지만 전문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자동차 산업대비 생산유발계수가 1.78배, 부가가치생산액은 1.3배에 달하며, 제조업의 평균 임금보다 1.5배 높은 임금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항공기 정비 수요가 있고, 부지가 있으며, 배후지원체계가 갖추어진 인천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정비를 위해 년 간 1.3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수로 전환시키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로 인한 결항율을 개선하여 정시성과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과 열정으로 결의안을 제출한다.

3. 결의안 이송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1부.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는 공항 서비스 세계 1위, 국제화물처리량 세계 2위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뿌리산업 산업단지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다.

세계는 국가간 경쟁을 넘어 도시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인천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항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창조경제모델을 공항과 항공운송산업을 넘어 항공기 부품 제조와 정비서비스에 이르는 항공산업 전반에서 찾고자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실행체계를 갖추고 항공분야 안전인정 법정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영종에 유치하였다.

이제는 인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소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수요를 바탕으로 항공기정비를 위한 특화단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강점을 살려 항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비즈니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와 구도심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아시아 주변국가에 비해 뒤떨어진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항공기 정비수요가 있고, 관련부지가 있으며, 배후지원체계가 갖추어진 인천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연간 1.3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고, 우리나라 항공기를 우리의 기술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이착륙 항공기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시성 확보와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항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인식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국제공항내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항공정비특화 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라!

하나. 정부는 영종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소재지 이전 검토를 중지하고 인천에서의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라!

하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의 본연의 기능강화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 재난예방을 위해 관련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항공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적극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2015. 4.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